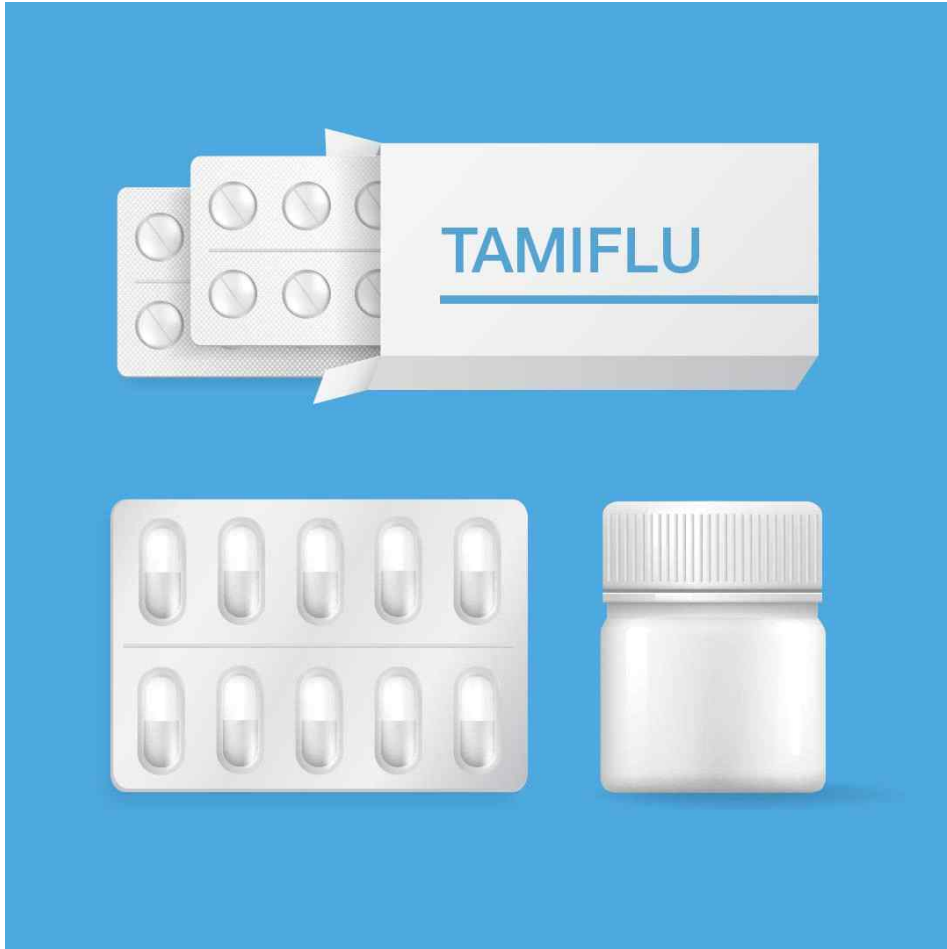


소아 · 청소년의 오셀타미비르(타미플루) 복용, 안전한가요?



Q. 소아·청소년이 오셀타미비르를 복용해도 안전한가요?

현재까지 보고된 임상연구와 임상지침 등을 폭넓게 검토한 결과, 소아 · 청소년에게 인플루엔자(독감) 치료를 목적으로 오셀타미비르(타미플루 등)를 투여한 경우 구토 증상이 증가하였지만 경련, 섬망과 같은 신경계 증상과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오셀타미비르 복용 후 경련, 섬망과 같은 신경계 증상에 대한 보고가 있지만, 약에 의한 부작용인지 독감에 의한 증상인지를 판단하기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임상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기술재평가 소위원회는 기존에 입증된 오셀타미비르의 독감 치료제로서의 안전성을 변경할 만한 근거는 없다고 판단하였고 소아 · 청소년 대상 오셀타미비르 복용에 따른 신경계 증상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환자 관찰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행한 안전성 서한과 안전 사용 리플릿에서 언급한 내용을 고려하여 소아·청소년이 오셀타미비르 약 복용 후 적어도 2일간은 혼자 있지 않도록 보호자가 필요하며, 이상 징후가 관찰되면 즉시 담당 의사와 약의 복용 중단 여부에 대해 상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소아 및 청소년에서 오셀타미비르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의료기술재평가사업 (NR20-001-09)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본 연구 결과는 전 세계에서 출판된 체계적 문헌고찰 문헌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고, 결론에 대해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 내용입니다.